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야구대회 4강 확정

광일리그-그린라인-메리츠화재보험-시원병원-테라·샤크스
무등리그-정일자동문·에어패스 파죽지세·자연환경·순환방병원 포비스

무등기 1주차 전적

◇광일리그 8강전(14일)
◆1경기 <기권승>
타이어프로 0000000-0
그린라인 0000000-7
◆2경기 <5회 콜드승>
메리츠화재보험 35012X-11
유니티 00002X-2
▲승리투수: 장영웅
◆3경기 <기권승>
시원병원 1111111-7
BFB 0000000-0
◆4경기
샤크스 2116X-10
뉴욕야시장 4113X-9
▲승리투수: 김경수
◇무등리그 8강전(15일)
◆1경기 <3회 시간제한승>
정일자동문: 329X-14
워리워스: 301X-4
▲승리투수: 설영민
◆2경기
에어패스 5061X-12
레이니즘 0000X-0
승리투수: 최태환
◆3경기 <6회 시간제한승>
파이터스 330013-10
자연환경 401205-12
▲승리투수: 박래준 ▲홈런: 최정재(6회말 끝내기 스리런·자연환경)
◆4경기 <5회 시간제한>
순환방병원 포비스 07102-10
상무스타치과병원 00162-9
▲승리투수: 이재정 ▲홈런: 이명준(4회 3점·상무스타)

13번째 무등기 정상을 향한 도전이 시작됐다. 광주일보와 전남문화가 주최하는 제13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야구대회가 지난 14일 영광 대마산단 야구장에서 열린 광일리그 8강전을 시작으로 열전의 무대에 돌입했다.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인들의 '가을잔치'인 무등기는 무등리그와 광일리그로 나눠 우승팀을 가리게 된다.

14일 광일리그 4강팀이 결정됐고, 15일에는 무등리그 준결승 진출팀이 가려졌다.

광일리그에서는 그린라인, 메리츠화재보험, 시원병원-테라, 샤크스가 4강을 확정했다.

그린라인과 시원병원-테라는 각각 타이어프로 광주터미널점과 BFB의 기권으로 힘대끼지 않고 다음 무대로 향했다.

메리츠화재보험은 유니티를 상대로 11-2, 5회 콜드승을 장식했다.

선발 장영웅이 3이닝 무실점 5탈삼진의 호투를 선보이면서 유니티의 추격의지를 꺾었다. 타석에서는 4번타자 조성주가 4안타 맹타를 쏟아내면서 대회 첫 승의 주역이 됐다.

샤크스는 뉴욕야시장과의 경기에서 10-9, 1점차 승리를 거뒀다.

1회 샤크스가 2점을 뽑아냈지만 뉴욕야시장도 이어진 공격에서 4점을 뽑아내면서 기싸움을 했다. 4-6으로 뒤진 4회 샤크스가 대거 6점을 뽑으면서 승부를 뒤집었다. 뉴욕야시장도 그날 물러서지 않았지만 샤크스의 마무리로 나선 김병국이 2개의 탈삼진으로 두 개의 아웃카운트를 책임지면서 경기를 끝냈다.

무등리그에서는 정일자동문, 에어패스 파죽지세, 자연환경, 순환방병원 포비스가 준결승에 올랐다.

정일자동문과 워리워스의 첫 경기로 막을 오른 무등리그 대결. 두 팀이 1회 3점씩 주고받았다. 2회 2점을 추가한 정일자동문은 3회 대거 9점을 뽑아내면서 승기를 기울였다.



15일 영광 대마산단 야구장에서 열린 제13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 무등리그 에어패스 파죽지세와 레이니즘과의 경기. 에어패스의 신문철이 김중권의 타석 때 3루 도루에 성공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정일자동문 조진문이 멀티히트로 2타점을 올렸고, 김정원은 안타와 2개의 볼넷으로 3타석에서 모두 출루한 뒤 2개의 도루까지 기록하면서 승리에 기여했다.

에어패스는 레이니즘을 상대로 12-0 대승을 거뒀다. 선발 최태환이 4이닝 동안 실점 없이 5개의 탈삼진을 뽑아내는 등 완벽 피칭을 선보였다. 2번타자 서호선은 3안타 행진을 하면서 승리를 이끌었다. 레이니즘의 정다현은 막강 에어패스 마운드를 상대로 안타를 기록하면서 팀의 '노히트' 패배를 막았다.

파이터스와 자연환경의 경기에서는 두 명의 투수만 마운드에 올랐다. 자연환경의 박래준이 6이닝을 책임지면서 완투승을 장식했다. 파이터스의 선발 류호현도 6회까지 마운드를 지켰지만 완투패를 기록했다.

파이터스 문경민이 3안타 활약을 했지만, 자연환경의 최정재가 끝내기 스리런을 날리면서 승리의 주역이 됐다.

순환방병원 포비스는 상무스타치과병원의 추격을 따돌리고 10-9 승리를 거뒀다.

0-0으로 맞선 2회 순환방병원이 7점을 뽑아냈

다. 상무스타치과병원은 4회 6점을 만들면서 '빅이닝'에 성공했다. 4회 순환방병원이 2점을 더해 10-7로 점수를 벌렸지만 이어진 수비에서 마지막 위기가 있었다. 상무스타치과병원에게 1점 차까지 추격을 허용한 순환방병원, 김현호가 소방수로 투입돼 승리에 필요한 아웃카운트 3개를 책임지면서 경기를 끝냈다.

한편 이번 대회는 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와 영광군야구소프트볼협회가 주관하며, 대회 우승팀은 오는 29일 결승전을 통해 가려진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기적은 없었다... KIA 가을야구 좌절

두산, LG 꺾고 5강 합류
KIA 2년 연속 외국인 투수 실패
'무색무취' 야구에 줄부상 악재
16·17일 NC와 마지막 2연전

에타게 두산 베어스를 지켜보던 KIA 타이거즈가 5강에서 탈락했다. KIA의 2023시즌은 '144경기'로 막을 내린다.

지난 14일 KBO '가을잔치'에서 우승을 다투는 5개 팀이 확정됐다.

지난 3일 LG 트윈스가 일찌감치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고 KT 위즈, SSG 랜더스, NC 다이노스에 이어 두산이 마지막 포스트시즌 진출권을 가져갔다. 두산은 14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LG와의 시즌 15차전에서 3-2 승리를 거두면서 KIA의 실낱같은 5강 불씨를 꺼뜨렸다.

KIA는 앞선 13일 두산과의 맞대결에서 1-3 패를 기록하면서 벼랑 끝까지 몰렸다. 두산이 남은 4경기에서 전패를 하고, KIA가 NC와의 마지막 2연전에서 모두 승리를 거둘 경우 5위 결정전인 '타이브레이크'를 치를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 있었지만, 기적은 없었다.

14일 KIA가 경기 없이 쉬어가는 동안 두산이 승리로 남은 경우의 수를 모두 지웠다.

지난해 5강 막차를 탄 뒤 와일드카드 결정전에

서 무기력한 패배를 당했던 KIA는 올해는 포스트시즌 문턱도 넘지 못했다.

'우승'을 외치며 타이거즈 역사상 첫 원클러팀 사령탑에 올랐던 김중국 감독은 2년 연속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표를 제출했다. 16·17일 NC와 두 경기를 남겨놓고 있는 KIA는 올 시즌 71승 2무 69패, 0.507의 승률로 6위에 자리하고 있다.

1·2위 팀인 LG와 KT에 각각 9승 7패, 10승 6패로 우위를 점했지만 '두산 열세'에 발목이 잡혔다. 사실상 '5강 결정전'이었던 두산과의 마지막 16차전에서 1-3로 지는 등 4승 12패 열세를 보이며 '초보 사령탑' 이승엽 두산 감독에게 포스트시즌 티켓을 선물했다.

5강 탈락이라는 결과는 물론 과정보도 좋지 못했다.

2년 연속 외국인 투수 농사가 실패했다. KIA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즌 중반 외국인 투수를 모두 교체하면서 시간·돈 낭비를 했다. 앤더슨(4승 7패·평균자책점 3.76), 메디나(2승 6패·6.05), 산체스(4승 4패·5.94), 파노니(6승 3패·4.37) 등 4명의 선수가 합작한 승수는 16승에 불과했다.

부상도 이어졌다. 나성범이 종아리 부상으로 시즌 출발이 늦어졌고, 김도영도 개막 두 경기 만에 발가락 골절상으로 오랜 시간 자리를 비웠다. 두 선수의 부상은 시즌 초반에 나온 어쩔 수 없는 '악재'였다고 해도, 시즌 막판 줄부상은 '불운'으로만 이야기하기에는 부족하다.

9연승을 이끌었던 타석의 주역들이 연달아 부상

으로 무너졌다.

나성범이 9월 19일 LG전에서 햄스트링 부상으로 시즌 아웃됐고, 9월 24일 KT전에서는 최형우가 왼쪽 새골 분쇄 골절로 시즌을 마감했다. 이어 10월 4일에는 박찬호가 KT와의 원정경기에서 이 선우의 공에 맞아 왼쪽 손목 분쇄 골절 부상으로 쓰러졌다.

나성범과 박찬호는 '부상 투혼' 중 또 다른 부상을 입어 결국 시즌을 마감했다.

무엇보다 KIA는 '무색무취'의 야구로 팬들의 원성을 샀다. 타이거즈를 잘 아는 사령탑으로 '호랑이 분상'을 깨워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김중국 감독은 효율적인 운영과 전력 극대화에 실패하면서 결과를 내지 못했다.

결정적인 순간 확실하게 분위기를 가져오는 전략이 부족했고, 판에 박은 마운드 운영에 상대에게 허를 찌르는 모습이었다. 타자들의 컨디션에 따라 결과가 좌우된 뻔한 시즌은 결국 5강 탈락으로 끝났다.

시즌 시작을 앞두고 장정석 단장이 '골품 요구 논란'으로 해임되는 등 프런트발 악재도 있었고, 이의리의 황당한 아시아게임 탈락과 최원준의 부상도 팬들의 속을 끓게 했다.

예측불허의 롤러코스터 전력에 있던 선수들의 부상 소식과 아시아게임 악재까지 겹치면서 KIA 팬들은 씁쓸하게 남은 두 경기를 지켜보게 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AI페퍼스 아쉬운 V리그 개막전

야스민 분전에도 현대건설에 1-3

박정아-야스민 '쌍포'를 내건 AI페퍼스의 개막전 승리 목표가 현대건설의 벽에 막혔다.

광주 프로여자배구단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15일 수원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3-2024 V리그 현대건설 힐스테이트와 원정 경기에서 세트 점수 1-3(9-25 25-18 15-25 18-25)으로 시즌 첫 승을 놓쳤다.

페퍼스는 박정아-야스민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지난 시즌 2위를 기록한 현대건설의 벽을 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지난 시즌까지 현대건설에서 뒀던 196cm 거포 야스민 베르데가니(등록명 야스민-미국)는 친정을 상대로 17점을 뽑아냈지만, 범실만 10개를 내며 공격 성공률은 38.46%에 그쳤다.

반면 현대건설 레티처아 모마 바스코(등록명 모마)가 26득점을 만들었고, 6개의 블로킹에 성공한 양효진이 14득점도 올리며 '40점 합작'을 이뤄냈다.

모마의 첫 득점으로 시작한 1세트는 페퍼스가 10점을 내보지도 못하고 끝나는 졸전이었다.

모마가 연속 5득점을 기록하는 등 현대건설이 10점을 먼저 가져가는 동안 페퍼스는 서브 범실만 3개를 냈다.

하지만 2세트에서는 야스민과 박정아의 몸이 풀리면서 페퍼스가 '투자한 만큼'의 가능성을 보였다. 현대건설이 2세트 초반 3점을 가져간 뒤 야스민의 공격력이 올라오면서 득점에 성공, 흐름이 바

뀌기 시작했다.

특히 박정아의 리시브와 세터 이고은의 결단력에 아시아쿼터 선수 엠제이 필립스(등록명 필립스·필리핀)의 속공 합작이 성공하며 8-8 동점을 만들어낸 뒤 페퍼스가 승기를 가져갔다.

세트 점수 동점을 허용한 현대건설은 3세트에서 다시 페퍼스를 몰아붙여 초반부터 기선을 제압했고, 세트 마지막까지 10점 차를 내며 경기를 주도했다. 4세트에서는 팽팽한 긴장감이 이어졌지만, 페퍼스가 12개의 범실을 쏟아내며 후반 경기 흐름을 뺏겼다. 지난 6월 부임한 뒤 석 달간 페퍼스와 호흡을 맞춘 조 트린지(미국) 감독은 V리그 데뷔전에서 패배의 맛을 봤다.

지난 시즌 한국도로공사의 챔피언결정전 우승을 이끈 뒤 연봉 7억7500만원의 '특급 대우'를 받고 페퍼스로 이적한 'FA' 박정아는 9득점(공격 성공률 33.33%)으로 부진했다.

아시아쿼터 선수인 필립스는 야스민(17득점)에 이어 11득점을 만들며 공격 성공률 44.4%를 기록했지만, 7개의 범실도 기록하는 등 적응에 시간이 더 필요한 모습이었다.

페퍼스의 빈약한 중량을 채워줄 것으로 기대한 194cm의 '2년 차' 염여름은 1세트에서 교체되며 지난 시즌 겪은 무릎 부상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

한편 페퍼스는 오는 19일 오후 7시 지난 시즌 '챔피언'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를 광주페퍼스타 디움으로 불러와 홈 개막전을 치른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LOTTE CINEMA | 총장로관

즐거움
문화
산책

30일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30일
- 2관 기억해, 우리가 사랑한 시간, 더 년 2
- 3관 기억해, 우리가 사랑한 시간, 더 년 2
- 4관 천박사 퇴마 연구소: 설경의 비밀, 더 년 2
- 5관 천박사 퇴마 연구소: 설경의 비밀, 크리에이터
- 6관 30일
- 9관 화려

7관 싸여들 1947 보스톤, 극장판 영웅이 탐정: 미스터리 가면 ~최강의 대결, 80일간의 세계일주

8관 싸여들 화려, 크리에이터, 만강홍: 사라진 밀서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3 GAC 공인예술축제 그라제

일시 : 2023-10-17(화) ~ 22(일)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소극장, 잔디광장
문의 : 062-613-8233

소리극 <클비츠와의 대화>

일시 : 2023-10-17(화) ~ 18(수)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문의 : 062-613-8235